

01. ①	02. ②	03. ①	04. ⑤	05. ③	06. ④	07. ④	08. ③	09. ⑤	10. ④
11. ⑤	12. ②	13. ②	14. ③	15. ⑤	16. ③	17. ④	18. ④	19. ③	20. ③
21. ①	22. ②	23. ①	24. ⑤	25. ②	26. ④	27. ⑤	28. ④	29. ①	30. ④
31. ④	32. ⑤	33. ④	34. ②	35. ③	36. ⑤	37. ②	38. ①	39. ⑤	40. ⑤
41. ④	42. ⑤	43. ①	44. ③	45. ①					

**[1~5] 화법**

**1. 의사소통 전략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화법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방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학생은 질문을 통해 박사에게 각 화폐에 나타난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구체적인 그림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하며, 자신이 본 그림이 별자리인지 확인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지만 박사의 설명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그렇군요. 작품 안에 이항 선생이 계실 것만 같아요.’, ‘그렇군요. 이번에는 뒷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겠어요?’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은 ‘그렇군요.’라는 말로 박사의 답변에 긍정적으로 반응함으로써 공감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③** ‘천 원권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알고 있나요?’라든지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도 아나요?’ 등의 질문을 통해 학생의 배경지식을 점검해 가며 화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④** ‘국어 시간에 ‘용비어천가’를 배운 적이 있을 텐데요.’라는 말은 학생의 학습 경험을 환기함으로써 정보 전달의 효과를 높이려는 의도를 지닌 말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라는 학생의 요청에 따라 박사는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대해 추가 정보를 제시하며 설명해 주고 있다.

**2. 필요한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인터뷰 대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상황을 설정하여, 인터뷰 대화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글쓰기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태성’의 ‘박사님의 설명 순서대로 지폐의 그림에 담긴 문화유산들을 시대순으로 서술하면 되겠네.’라는 말은 인터뷰 내용 구성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인터뷰 대화는 천 원권에 대해 먼저 이야기한 후 만 원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화제로 제시한 천 원권 화폐에 그려진 그림은 조선 후기의 그림이고 나중 화제로 제시한 만 원권 화폐에 그려진 그림은 조선 초에 제작된 천문도이므로 박사님의 설명 순서가 시대순이라고 이해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학생이 ‘지폐 속에 담긴 우리 문화유산’을 주제로 특집 기사를 쓸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우리의 지폐에 문화유산과 관련된 정보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폐가 박물관이다.’라는 발상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③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생소한 명칭인데다 박사님의 설명에도 이 천문도의 가치만 언급되어 있을 뿐 그 말의 의미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실제 ‘천상열차분야지도’란 하늘의 모습 ‘천상’을 ‘차’와 ‘분야’에 따라 벌려 놓은 ‘그림’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차’란 목성의 운동을 기준으로 설정한 적도대의 열두 구역을 말하고, ‘분야’란 하늘의 별자리 구역을 열둘로 나눠 지상의 해당 지역과 대응시킨 것을 뜻한다. 이런 의미를 추가로 설명한다면 학생들이 생소한 이름의 천문도를 보다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④ ‘계상정거도’는 천 원권 지폐의 뒷면에 그려진 그림이다. 이 그림을 확대하여 제시하면 도산 서원과 그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 책을 읽고 있는 학자의 모습 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글의 전달 효과를 높일 수 있다. ⑤ 박사의 마지막 말인 ‘학생들이 지폐 속에 담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말을 인용하여 학생들에게 박사의 당부를 전달할 수 있다.

### 3. 논제의 성격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문학 작품에 제시된 상황을 바탕으로 벌어지는 토론의 논제를 파악하고, 그 논제가 어떤 성격을 지닌 것인지 파악하는 문항이다. 이 토론의 논제는싼 값에 산 책을 비싼 값에 되파는 책방 주인의 행위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판단하고, 자신의 판단이 상대방의 판단보다 더 타당하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 1’은 책방 주인의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며 그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하고 있고, ‘학생 2’는 책방 주인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그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토론의 논제는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타당성을 밝혀야 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토론의 시작 부분에서 사회자는 ‘책방 주인의 이윤 추구 행위가 정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라고 토론의 중심 내용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이 토론의 논제가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이 더 유용한지를 판단하’는 것이나 ‘다른 방법과의 절충 방안을 밝’히는 것과 관련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토론의 쟁점은 책방 주인의 행위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판단하는 데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토론의 논제는 행위의 정당성에 초점을 맞추어 설정되는 것이지 ‘어떤 현안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정책이 필요함을 밝’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④ 대체적으로 토론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보다는 상반되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견해가 타당함을 주장하고자 할 때 이루어지는 화법의 유형이다. 그러므로 제시된 상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토론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그 사실 관계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밝혀야 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⑤ ‘학생 1’과 ‘학생 2’가 자신의 주장이 어떤 정책을 실현하는 데 상대방보다 더 유용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두 사람은 각각 ‘책방 주인의 행위는 부당하다.’, ‘책방 주인의 행위는 정당하다.’

---

라는 판단을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이 상대방보다 더 타당하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 4. 이어질 내용의 추론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토론의 흐름을 파악하여 앞 사람의 말에 반박하는 말로 가장 자연스럽게 타당한 내용을 추론하는 문항이다. ‘학생 1’은 ‘투자한 것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했’다는 것과 ‘책값을 결정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한 이익을 얻고자 했다’는 점에서 책방 주인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론의 과정에서 ‘학생 2’는 ‘책방 주인이 책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나’의 상황까지 고려하라고 말씀하신 것은’이라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 1’이 입론에서 제시한 내용과 상이한 것이다. 즉 ‘학생 2’는 ‘학생 1’의 입론 내용을 잘못 파악했거나 왜곡된 채로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학생 1’은 자신이 ‘구매자들마다 책값을 달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자신의 발언을 왜곡하고 있는 ‘학생 2’에 대해 반박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책을 파는 사람의 상황을 일일이 고려하여 책값을 책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는 [가]의 앞에서 ‘학생 2’가 제시한 말과 동일한 인식을 드러내는 말이므로 ‘학생 2’에 대한 반박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책을 파는 사람의 상황이 절박했다는 것은 반론의 과정에서 ‘학생 1’이 한 말에 드러난다. 그러므로 ‘학생 1’이 ‘학생 2’에 대한 반박으로 ‘논리적인 근거 없이 동정심을 유발하여 설득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이 내용은 ‘학생 2’가 ‘학생 1’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드러낼 때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학생 2’는 반론의 과정에서 ‘그건 합리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학생 1’이 ‘제가 제시한 방법에 대해, 합리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신 것은’이라고 반박하게 된다면, 이는 [가] 앞에 제시된 ‘학생 2’의 반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④ 토론의 과정을 통해 ‘학생 1’과 ‘학생 2’가 이미 책방 주인에게 가격 결정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합리성을 고려한다면 책방 주인에게 판매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라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

#### 5. 말하기 과정 분석 및 작문의 과정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토론의 청중으로 참여했던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 1’과 ‘학생 2’의 말하기 과정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다시 작문의 과정에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에서는 1989년 설렁탕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했다가 소비자의 외면을 받아 가격이 내려가게 되었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 2’의 입론에 사용된 둘째 논거인 ‘가격 결정권이 책방 주인에게 있는 대신 ‘나’는 거래를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었으므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거래’라는 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사례이지 이 논거가 현실과 어긋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가 아니

다. 즉, ㉠은 소비자가 물건을 살 것인지 사지 않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사례인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학생 1’은 반론 부분에서 ‘이윤 추구 자체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고, ‘학생 2’는 처음부터 책방 주인의 이윤 추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은 모두 책방 주인의 이윤 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과 같은 내용으로 글을 시작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② ‘학생 2’는 입론 부분에서 ‘가격 결정권이 책방 주인에게 있는 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학생 1’은 반론 부분에서 ‘책방 주인에게 가격 결정 권한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활용하여 ㉡과 같은 내용을 제시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④ ‘학생 1’은 반론의 둘째 논거로 ‘책방 주인이 구입 가격의 열 배의 금액으로 책을 팔고자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이윤 추구로 볼 수 없고 과도한 이윤 추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곧 상식선에서 이해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과 같은 표현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⑤ ‘학생 1’은 입론, 반론 부분에서 일관적으로 책방 주인의 과도한 이윤 추구를 비판하고 있다. 즉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은 ‘학생 1’의 관점에 부합하는 주장을 활용하여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 [6~10] 작문

### 6. 글쓰기 전략

**정답해설 :** 이 글에서는 종자와 종자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경쟁력 있는 종자 기업 육성에 소홀했던 그동안의 모습을 제시하며, 국내 종자 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종자 개발에 뛰어난 능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드러내고 있다. 과거의 정책과 자신이 내세운 대안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문단 ‘국내 채소 종자 시장의 경우 종자 매출액의 50%가량을 외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에서 현재의 문제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 이와 관련한 조사 결과를 사례로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2문단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 종자를 심고 키우기 어려워질 것이고 ~ 결국에는 종자 문제가 식량 안보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에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원인으로는 일단 그동안 ~ 경쟁력 있는 종자 기업 육성에 소홀했다는 데 있다.’에서 현 상황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황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5문단 ‘세계적으로 종자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생명 공학과의 접목을 통하여 향후 고부가가치 창

---

출 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종자 산업의 전망은 매우 밝다.’에서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화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7.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표현의 적절성

**정답해설 :** (가)에서는 국내 종자 기업의 품종 개발 투자 수준이 낮다는 조사 내용을 밝히고 있다. ‘종자 개발에 경쟁력 있는 종자 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되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가)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을 구체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에서는 새로 개발된 콩 종자의 획일적인 보급으로 인한 문제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개발된 종자의 장점만을 중시하여 종자를 획일화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장기적 안목에서 다양한 종자의 개발과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나)에 드러난 현상에서 시사점을 찾아 ㉠에 추가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기업들의 인식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은 (가)로부터 핵심 내용을 도출하여 ㉠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해외 시장의 적극적 개척에 대한 내용 역시 (나)에 드러난 현상의 시사점을 찾아 ㉠에 추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경쟁력 있는 종자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은 (가)로부터 핵심 내용을 도출하여 ㉠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토종 종자로 단일화하여 보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나)에 드러난 현상의 문제점을 간과한 내용이다. ③ 품종의 다양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나)에 드러난 현상의 시사점을 찾아 ㉠에 추가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나, 종자 기업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 유통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은 (가)로부터 핵심 내용을 도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⑤ 종자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가)로부터 핵심 내용을 도출하여 ㉠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외래 종자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 확대는 (나)에 드러난 현상의 시사점을 찾아 ㉠에 추가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 8. 발표 전략 계획

**정답해설 :** 통계 자료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전달 효과를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종자 시장을 외국에 개방함으로써 얻게 된 경제적 이익 현황은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발표 전략에 대한 실행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이 글에서는 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 종자 문제를 제시하며 정책적 지원을 통해 종자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종자 산업의 문제점과 해결 방향’이라는 발표 화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해 주면 청중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② 흔히 먹는 곡물과 채소를 언급하며 그 종자가 어느 나라의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청중에게 질문하고 반응을 살피는 것은 청중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상호 작용이라 할 수 있다. ④ 전문가가 식량 안보 위협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동영상 자료를 보여 주는 것은 내용을 청중에게 더욱 생생히 전달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⑤ 화제와 청중의 관련성을 부각하여 종자 산업이 부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식량 안보 문제가 우리 삶과 직결되는 것임을 강조하면 발표 내용에 대해 청중들이 공감하도록 이끌 수 있다.

### 9. 글쓰기 계획에 따른 표현하기

**정답해설 :** ⑤의 ‘오리 토끼’ 그림을 보며 선입견은 자기의 생각을 자신이 만든 동굴 속에 가두는 것과 같다고 느꼈다.’에서 ‘오리 토끼’ 그림에 대해 언급하며 비유를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스스로 정한 틀로만 대상을 보려는 태도는 학문 탐구에 장애가 되므로’에서 학문 탐구에서 선입견의 위험성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탐구 관점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에서 대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갖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우물 안 개구리처럼’에서 비유를 활용하고 있고 ‘대학에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하려면 다양한 전공을 경험해 봐야 함을 알았다.’에서 대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지만, ‘오리 토끼’ 그림을 활용하고 있지 않고, 학문 탐구에서 선입견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② ‘오리 토끼’ 그림을 보니’에서 ‘오리 토끼’ 그림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친구들의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지 못했던 내가 부끄러워졌다.’에서 대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갖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드러내고 있지만, 비유를 활용하고 있지 않았고 학문 탐구에서 선입견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았다. ③ ‘처음엔 ‘오리 토끼’ 그림이 오리로 보였으나’에서 ‘오리 토끼’ 그림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주관이나 선입견에 얽매어 좋지 아니하게 보는 태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색안경’을 활용하여 학문 탐구에서 선입견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대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갖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④ ‘오리 토끼’ 그림을 보고’에서 ‘오리 토끼’ 그림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대상을 탐구하려는 자세가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에서 대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비유를 활용하고 있지 않고 학문 탐구에서 선입견의 위험성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 10. 내용 생성의 적절성

**정답해설 :** ‘학생 2’의 글에서는 ‘대학 전공 체험’과 관련하여 대학 측에 바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얼마 전 학교에 게시된 ‘□□대학교 전공 체험 교실’에 대한 안내문을 보고 전공 선택에 도움을 얻고자 참가 신청을 하였다.’에서 체험 활동에 참가하게 된 동기를 밝혔음을 알 수 있다. ② ‘오전에는 전공 소개를 포함한 특강이 있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는 전공 실습을 했다.’에서 체험의 내용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전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이 과정에서 글을 잘 쓰려면 체계적인 분석력과 논리적인 사고력 그리고 창의적인 표현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에서 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 ‘아직 전공 선택 문제로 고민하

는 친구들이 있다면 전공 체험 교실에 참여해 보면 어떨까? 기회가 된다면 전공 체험 교실에 꼭 참여해 볼 것을 권한다.’에서 체험을 권유하는 내용으로 끝맺었음을 알 수 있다.

[11~16] 문법

11. 표준 발음법 적용

**정답해설** : 이 문항에서는 표준 발음법 제8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받침 발음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탈락과 교체의 음운 변동 양상을 파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음운 변동의 양상 자체를 탈락과 교체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받침 발음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탈락과 교체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뺨는’이 [뺨:는]으로 발음되는 과정을 보면, 우선 겹받침 ‘ㄹㄹ’ 중 ‘ㄹ’이 탈락되어 ㉠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뺨:는\*]이 아니라 [뺨:는]으로 발음됨을 통해 ‘ㅂ’이 ‘ㅁ’으로 교체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때의 교체는 ‘받침 발음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자음의 교체가 아니다. ‘ㅂ’은 받침소리로 발음되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뺨고, 뺨지’는 [뺨:꼬], [뺨:찌]로 발음되어 ‘ㅂ’이 교체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뺨는’이 [뺨:는]으로 발음되는 과정에서 ‘ㅂ’이 ‘ㅁ’으로 교체되는 것은 뒤이어 소리 나는 ‘ㄴ’의 영향에 따른 비음화의 결과이며, 이는 ‘받침 발음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교체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에는 ㉠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

**[오답피하기]** ㉠ ‘읽다’가 [익따]로 발음되어 겹받침 ‘ㄹㄹ’ 중 ‘ㄹ’이 탈락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 ‘웁는’이 [웁:는]으로 발음되어 겹받침 ‘ㄹㄹ’ 중 ‘ㄹ’이 탈락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 ‘닥지’가 [닥찌]로 발음되어 ‘ㄱ’이 ‘ㄱ’으로 발음되는데, 이를 ‘ㄱ’에서 ‘ㄱ’이 탈락되어 ‘ㄱ’으로만 발음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면 안 된다. ‘ㄱ’은 겹받침이 아니라 하나의 자음이며, 따라서 자음 ‘ㄱ’이 받침소리로 발음되는 7개 자음 중 하나인 자음 ‘ㄱ’으로 교체되어 발음된다는 ㉠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웁기’가 [웁끼]로 발음되는 과정을 보면, 우선 겹받침 ‘ㄹㄹ’ 중 ‘ㄹ’이 탈락되어 ㉠의 적용을 받는다. 이때 ‘웁’의 ‘표’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에 속하지 않으므로 ‘ㅂ’으로 교체되어 발음되는데, 이 과정에서 ㉠의 적용을 받는다. 이때 ‘표’이 ‘ㅂ’으로 교체되는 것은 ‘받침 발음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현상으로 ㉡에서 ‘ㅂ’이 ‘ㅁ’으로 교체되는 현상과는 차이가 있다.

12. 비문의 유형 및 해소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서술어 자릿수’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빠져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을 올바른 문장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에 제시된 ‘문제는 우리가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아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

장이 된 경우로, 이를 ‘문제는 우리가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라고 수정한 것은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을 보충함으로써 문장을 정확하게 고친 경우가 아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서술어 ‘요청하다’는 【…에/에게 …을】의 꼴로 쓰여, 부사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그들은 양식이 다 떨어지자 식량 공급을 요청했다.’에는 부사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정부에’를 보충하여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으로 수정한 것이다. ③ 서술어 ‘소개하다’는 【…에/에게 …을】의 꼴로 쓰여, 부사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나는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내 친구를 소개하였다.’에는 부사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누나에게’를 보충하여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으로 수정한 것이다. ④ 서술어 ‘삼다’는 【…을 …으로】의 꼴로 쓰여, 목적어와 부사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우리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지금보다 강해질 것이다.’에는 목적어가 쓰이지 않았으므로 ‘그 일을’을 보충하여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으로 수정한 것이다. ⑤ ‘어떤 분야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다.’의 뜻을 지니는 서술어 ‘어둡다’는 【…에】의 부사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형은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두울 수밖에 없다.’에는 부사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동네 지리에’를 보충하여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으로 수정한 것이다.

### 13. 한글 맞춤법 적용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잘못 표기하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쓰인 사례를 고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까지 한글 맞춤법과 관련된 문항이 주로 규정 속에 내재되어 있는 원리를 파악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하여 왔음에 비해, 이 문항은 직접적으로 올바른 표기를 고를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부치다’는 ‘편지를 부치다.’처럼 ‘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에게로 보내다.’의 의미를 지니기도 하고, 제시된 용례처럼 ‘어떤 문제를 다른 곳이나 다른 기회로 넘기어 맡기다.’의 의미를 지닐 때에는 ‘안건을 회의에 부치다.’, ‘표결에 부치다.’, ‘재판에 부치다.’, ‘투표에 부치다.’ 등처럼 쓰인다. ‘부치다’와 흔히 혼동하기 쉬운 ‘붙이다’는 대체로 ‘붙다’의 사동사로 쓰여 ‘봉투에 우표를 붙이다.’, ‘벽에 메모지를 붙이다.’, ‘연탄에 불을 붙이다.’, ‘계약에 조건을 붙이다.’ 등과 같이 쓰인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어제저녁’의 준말로, ‘엇저녁’이 아니라 ‘엇저녁’으로 써야 한다. ③ ‘적지 않은’의 준말로, ‘적잖은’이 아니라 ‘적잖은’으로 써야 한다. ④ 김치의 일종을 뜻하는 말로, ‘깍뚜기’가 아니라 ‘깍두기’가 바른 표기이다. ⑤ ‘편편하고 얇으면서 꽤 넓다.’의 의미를 지니는 말로, ‘넙적하게’가 아니라 ‘넓적하게’가 바른 표기이다.

### 14.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한글의 제자 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시된 학생들의 설명이 어떤 원리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분류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학생

3'은 한글의 자음자에서 <예사소리>-<거센소리>-<된소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예사소리>-<거센소리>의 관계를 <A>-<A에 획 추가>로 표현한 것을 통해 '나'의 '가획의 원리'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예사소리>-<된소리>는 <A>-<AA>로 표현한 것을 통해 '다'의 '초성자를 나란히 써서 또 다른 초성자로 사용하였다.'라는 '병서(並書)의 원리'를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ㄱ-ㅋ-ㆁ'에서 거센소리 'ㅋ'은 예사소리 'ㄱ'에 가획하여 만든 글자이고, 된소리 'ㆁ'은 'ㄱ'을 나란히 이어 써서 만든 글자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학생 1'은 자음자 중 'ㄱ'이 어떠한 모습을 형상화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가'의 '상형의 원리'에 해당한다. '가'에서 초성자와 중성자의 기본자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다고 하였는데, 초성의 기본자 'ㄱ, ㄴ, ㄹ, ㅅ, ㅇ'과 중성의 기본자 'ㆍ, ㅡ, ㅣ'는 각각 발음 기관과 천지인(天地人)을 상형하여 만든 글자이다. '학생 2'는 'ㆍ, ㅡ, ㅣ'의 기본자를 바탕으로 모든 모음자를 휴대 전화 자판으로 입력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라'의 중성자의 제자 원리에 해당한다. 모음자라 불리는 중성자는 기본자 'ㆍ, ㅡ, ㅣ'를 바탕으로 'ㅡ'와 'ㆍ'를 합성하여 'ㅜ, ㅠ'를 만들고, 'ㅣ'와 'ㆍ'를 합성하여 'ㅓ, ㅕ'를 만들었다. 여기에 다시 'ㆍ'를 하나씩 더해 'ㅛ, ㅜ, ㅠ, ㅡ'를 만들어 모두 11자의 중성자(모음자)를 완성한 것이다. '학생 4'는 'ㅁ'에 획을 더해 만든 자음자 'ㅂ, ㅍ'은 모두 'ㅁ' 모양을 공통적으로 지니며, 이것은 'ㅁ, ㅂ, ㅍ'의 공통된 소리 특징을 반영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나'의 '가획의 원리'가 반영되었다. '학생 5'는 중성자, 즉 받침 글자를 따로 만들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는데, 이 점은 한글이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문자로 평가받는 특징 중 하나이지만 제시된 제자 원리 중에는 이 점에 대한 서술은 나타나지 않는다.

**15.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더하다'와 '덜하다'라는 특정 어휘에 대한 다양한 국어사전의 정보를 탐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으며, 어휘의 사전적·문맥적 의미에 대한 이해에 더해, 품사, 문형, 반의 관계에 대한 지식을 동시에 묻고 있다. 정답은 ⑤로, '어떤 기준이나 정도가 약하다.'의 의미를 지니는 '덜하다'의 반의어로는 '더하다 [II]②'가 아니라 '더하다 [I]'이 적합하다. '덜하다'와 '더하다 [I]'의 뜻을 비교해 보면 둘 모두 【...보다】 어떤 기준보다 정도가 약하다/심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항목의 용례를 비교해 보아도 '더하다/덜하다' 사이의 반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더하다 [I]'은 '심하다'라는 상태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형용사이다. '더하다 [I]'의 반의어인 '덜하다'가 형용사라는 점을 통해서도 추론할 수 있다. ② ㉠에는 '더하다 [II]①'의 문형 정보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는 제시된 용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제시된 용례 중 '2만 원을 3만 원과 더하면 5만 원이다.'는 【...을 ...과】에 해당하며, '아래의 숫자들을 모두 더하시오.'는 【...을 (...과)】에서 '...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목적어로 오는 경우이다. 이렇게 볼 때, ㉠에

는 ‘둘에 셋을 더하면 다섯이다.’와 관련된 문형이 요구되는데, 【…에 …을】이 이에 해당한다. ③ ‘더하다Ⅱ]②’는 ‘어떤 요소가 더 있게 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에/에게 …을】가 문형 정보 중 하나임을 고려할 때, ‘그의 등장은 영화에 재미를 더했다.’는 ‘더하다Ⅱ]②’의 용례로 적합하다. ④ ‘더하다Ⅱ]③’의 의미가 ‘어떤 정도나 상태가 더 크거나 심하게 되다.’라는 점, 해당 용례로 ‘그는 갈수록 고약한 잠버릇이 더했다.’가 제시된 점을 고려할 때, ‘그들의 횡포가 점점 더한다.’는 ‘더하다Ⅱ]③’의 용례로 적합하다.

## 16.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문법적, 표기적으로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이 문항을 정확하게 풀이하기 위해서는 중세 국어에 대한 의미적 이해는 물론 선지에 제시된 문법 용어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대 국어의 ‘걸음을’을 중세 국어에서는 ‘거르믈’로 표기하였는데, 이는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분철)’이 아니라 ‘소리대로 적은 것(연철)’이다. 즉, 현대 국어는 ‘걸음을’로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고, 중세 국어는 ‘거르믈’로 소리대로 적었다는 차이가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현대 국어 ‘부처의’와 중세 국어 ‘부텃’을 비교해 보면, 현대 국어에서는 관형격 조사로 ‘의’가 쓰임에 비해, 중세 국어에서는 ‘스’이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현대 국어에서는 객체인 ‘부처의 말씀’을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가 쓰이지 않음에 비해, 중세 국어에서는 객체인 ‘부텃 말’을 높이기 위해 ‘-줍-’이라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현대 국어에서는 ‘-시-’로, 중세 국어에서는 ‘-샤-’로 주체 존대 선어말 어미가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⑤ 현대 국어 ‘바가’와 중세 국어 ‘배’를 비교해 보면, 현대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로 ‘가’가 쓰임에 비해, 중세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 ‘ㅣ’가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바’에 결합되어 ‘배’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 [17~30] 독서

### [17~20] 인문, ‘신채호의 역사관’

**지문해설** : 이 글은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 과정으로 본 신채호의 역사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채호의 역사관의 핵심 개념은 ‘아’로, ‘아’는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인 동시에 항상 나와 상대하고 있는 존재인 비아와 마주 선 주체를 의미한다. 이때 아의 자성(自性), 곧 ‘나의 나됨’은 스스로의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항성(恒性)과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려는 변성(變性)이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자성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 신채호는 아를 소아와 대아로 구별하였는데, 소아는 개별화된 개인적 아이고, 대아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이다. 소아는 자성은 갖지만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하는 데 반해, 대아는 자성을 갖고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

다. 상속성은 시간적 차원에서 아의 생명력이 지속되는 것을 뜻하며, 보편성이란 공간적인 차원에서 아의 영향력이 파급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상속성은 보편성의 확보를 통해 실현되며 보편성은 상속성의 유지를 통해 실현되는 것으로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다. 대아가 자성을 자각한 이후,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는데, 만약 대아의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환경에 순응하지 못하며,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환경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우월한 비아에게 정복당하게 된다. 식민 지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신채호는 조선 민중을 아의 중심에 놓으면서, 아에도 일본에 동화된 '아 속의 비아'가 있으며 일본이라는 비아에도 아와 연대할 수 있는 '비아 속의 아'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조선 민중을 참된 민족 생존과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체이자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즉 '비아 속의 아'와의 연대를 통해서 부당한 폭력과 억압을 강제하는 제국주의에 저항할 수 있는 주체로 보았다.

**[주제]**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 과정으로 인식한 신채호의 사상

### 17. 글의 개괄적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신채호가 아를 소아와 대아로 구별하면서 대아의 개념을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라고 설명하고는 있지만, 대아의 개념이 생겨난 역사적인 기원을 소개하지는 않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투쟁과 연대가 모순되지 않는 요소임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채호 사상의 핵심 개념인 '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② 2문단에서 '자성'이 '나의 나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③ 3문단에서 소아는 개별화된 개인적 아로서 자성은 갖지만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하는 반면, 대아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로서 자성을 갖고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고 그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⑤ 5문단에서 조선 민중이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 함께 부당한 폭력과 억압을 강제하는 제국주의에 저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중 연대의 의의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 18. 핵심 개념의 이해

**정답해설** : 3문단에서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대아의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환경에 순응하는 적응력이 약화되고,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환경에 대한 주체적인 대응 능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대아의 상속성과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소아는 자성은 갖지만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하므로 자성을 갖춘 모든 아가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② 소아는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하므로 소아의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룬다 하더라도 대아로서의 상속성과 보편성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③ 대아의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다는 것은, 대아의 고유

---

성이 약하고 적응성이 강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유성을 상속성과 적응성을 보편성과 연계하여 이해한다면, 대아의 향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상속성이 실현되기 어렵다. ⑤ 소아는 대아와 달리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하므로 상속성과 보편성의 실현 여부를 소아와 연계하여 설명할 수는 없다.

### 19. 글의 논지 이해

**정답해설** : 4, 5문단에서 신채호는 조선 민중을 아의 중심에 놓으면서 조선 민중을 민족 생존과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체이자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즉 ‘비아 속의 아’와 연대를 통해 제국주의에 저항할 수 있는 주체로 보았다. 따라서 신채호가 연대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비아’가 아니라 ‘비아 속의 아’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신채호가 조선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저술하였다고 언급한 점에서 『조선상고사』가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대아로서의 조선 민족의 자성을 유지·계승하기 위한 목적에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② 4문단에서 신채호는 동양주의가 비아인 일본이 아가 되어 동양을 통합하는 길이기 때문에 조선 민족인 아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신채호가 동양주의를 아의 향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상속성과 보편성을 지닌 대아로서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신국민을 강조한 것에서 신채호가 일본 제국주의가 아의 상속성과 보편성 유지를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⑤ 5문단에서 신채호가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비아 속의 아)과 식민지 민중의 연대를 통해 ‘인류로서 인류를 억압하지 않는’ 자유를 지향했음을 알 수 있다.

### 20. 사전적 의미의 파악

**정답해설** : ‘설정’의 사전적 의미는 ‘새로 만들어 정해 둬.’이다. ‘여럿 가운데서 어떤 것을 뽑아 정함.’은 ‘선정’의 사전적 의미이다. **정답 ③**

### [21~24] 사회, ‘사회 이론과 시대 상황’

**지문해설** : 이 글은 19세기 시민 사회론을 통해, 사회 이론이 시대적 상황이나 역사적 조건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됨을 밝히고 있다. 헤겔의 시민 사회론은 당시 프러시아가 산업화 추진의 필요성과 함께 빈부 갈등 등 사회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동시에 요구받던 상황에서 대두되었다. 한편 뒤르켐의 시민 사회론은 프랑스 혁명 이후 사익 추구의 각축장이 되어 있었던 프랑스 상황을 배경으로 전개되었다. 헤겔과 뒤르켐 모두 시민 사회를 배경으로 직업 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연구했으나 두 학자가 처한 사회적·역사적 조건이 다르므로 인해 두 이론 역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

**[주제]** 시대 상황의 영향을 받는 사회 이론

---

## 21. 내용 전개 방식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의 논지는 사회 이론이 당시의 사회 상황이나 역사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례로 헤겔과 뒤르켐의 이론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4문단에 따르면 헤겔과 뒤르켐 모두 시민 사회와 직업 단체에 대해 이론을 펼쳤지만 두 사람의 이론은 상이한 성격을 갖는데, 이는 이들이 처한 사회적 역사적 배경이 달랐기 때문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이 글에는 화제에 대한 예외적인 사례가 제시되지 않았다. 헤겔과 뒤르켐의 시민 사회론은 모두 이 글의 화제인 '사회 이론과 시대 상황의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사례들이다. ③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반증이 되는 사례가 제시되지 않았다. ④ 쟁점이란 논쟁의 중점 사항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글에는 논쟁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이 글은 헤겔과 뒤르켐의 두 사례를 들어 논지를 펴고 있으므로, 동일한 사례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22.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 따르면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사회는 사익을 추구하는 파편화된 개인들의 각축장이 되어 있었다. 따라서 개인들의 사익 추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19세기 초 프러시아에는 절대주의의 잔재가 남아 있었고, 산업 자본주의가 미성숙한 상태였다고 하였다. ③ 2문단에서 헤겔은 빈곤과 계급 갈등은 시민 사회 내에서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며, 이를 해결할 최종 주체는 국가라고 하였다. ④ 3문단에서 뒤르켐은 사익의 추구가 극대화된 당시의 사회를 아노미 상태로 보았다고 하였다. ⑤ 2문단에서 헤겔은 공리주의가 국익 증대에는 기여하지만 무한한 사익 추구로 인한 갈등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고 하였다. 또한 3문단에서 뒤르켐은 공리주의가 개인의 이기심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아노미를 조장할 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 공리주의가 시민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 23.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헤겔은 직업 단체가 사익 조정과 공익 실현에 기여한다고 하였고, 3문단에서 뒤르켐 역시 직업 단체가 사익을 조정하고 공익을 실현할 주체로 보았다고 하였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3문단에서 직업 단체가 국가를 견제해야 한다고 본 것은 뒤르켐의 견해를 알 수 있다. ③ 2문단에 따르면 치안 및 복지 문제 해결의 기능을 해야 하는 것은 헤겔이 제시한 복지 행정 조직의 역할이다. ④ 2문단에서 헤겔은 당시 프러시아 상황에서 사익 추구가 국부를 증대해 준다는 점에서는 공리주의를 긍정했다고 할 수 있다. 3문단에 따르면 공리주의를 억제하고 도덕적 개인주의를 수용한 것은 뒤르켐의 견해이다. ⑤ 2문단과 3문단에서 헤겔과 뒤르켐의 직업 단체는 모두 시민 사

---

회의 역할을 논하면서 제시된 이론이므로, 시민 사회 외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 24. 글의 주제 추론

**정답해설** : 1문단과 4문단에 따르면 사회 이론은 당시 시대적 배경과 긴밀히 연관된다. 따라서 사회 이론을 이해하는 데에는 그 이론이 만들어진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과 4문단에서 사회 이론은 과학적 방법을 적용한 과학적 연구이지만, 그 이론이 탄생한 시대적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과학적 연구가 불가능하다고 본 것은 아니다. ② 4문단에서 사회 이론은 이론가의 주관적인 문제의식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였다. ③ 1문단과 4문단에서 글쓴이는 사회 이론이 시대적·역사적 조건, 현실의 문제 상황, 이론가의 주관적인 문제의식의 영향 하에서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으므로, 시·공간을 넘어 보편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객관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보기 어렵다. ④ 1문단과 4문단에서 사회 이론은 사회 현실의 문제 상황과 긴밀히 관련된다고 하였다.

#### [25~26] 과학, ‘달과 지구의 공전 궤도’

**지문해설** : 이 글은 평소보다 큰 보름달인 ‘슈퍼문’이 발생하는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슈퍼문은 달의 공전 궤도가 타원 궤도라는 점과 관련이 있는데, 타원 궤도는 두 개의 초점이 있고,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원 모양에 가까워지게 된다.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장축의 길이로 나눈 값을 이심률이라고 하는데, 이심률은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작아지게 된다. 달의 타원 궤도에서 지구로부터 가장 먼 지점을 ‘원지점’, 가장 가까운 지점을 ‘근지점’이라고 하는데, 슈퍼문은 보름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할 때 관측된다. 지구의 공전 궤도에서도 달의 공전 궤도로 인해 일어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을 ‘원일점’, 가장 가까운 지점을 ‘근일점’이라고 하는데, 지구와 태양 사이의 이러한 거리 차에 따라 일식 현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달이 태양을 가릴 수 있는 특수한 위치에 있을 때, 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대부분의 경우 태양 면의 전체 면적이 달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 일식이 관측된다.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달이 원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태양 면이 가장 자리가 빛나는 고리처럼 보이는 금환 일식이 관측된다. 원일점, 근일점, 원지점, 근지점의 위치는 태양, 행성 등 다른 천체들의 인력에 의해 영향을 받아 미세하게 변하는데, 천체의 다른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을 때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현재보다 더 작아지면 근일점은 현재보다 더 멀어지며 원일점은 현재보다 더 가까워지게 된다. 같은 조건에서 이심률만이 현재보다 커지면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이는 달의 공전 궤도 상에 있는 근지점과 원지점도 마찬가지이다.

**[주제]** 달과 지구의 공전 궤도에 따른 천문 현상의 변화

## 25. 글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천체의 공전 궤도에 존재하는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궤도가 원 모양에 가까워지고,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심률은 작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달과 지구의 공전 궤도에 적용해 보면, 달의 이심률은 0.055로 지구의 이심률인 0.017보다 크다. 따라서 현재의 지구 공전 궤도가 현재의 달의 공전 궤도보다 원 모양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4문단에서 원일점, 근일점, 원지점, 근지점의 위치는 태양, 행성 등 다른 천체들의 인력에 의해 미세하게 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태양의 인력으로 달 공전 궤도의 이심률이 약간씩 변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금환 일식은 태양이 달에 비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태양 면이 달에 의해 완전하게 가려지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금환 일식이 일어날 때 지구에서 관측되는 태양의 각지름은 달의 각지름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2문단에서 슈퍼문은 보름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할 때 관측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보름달의 크기는 원지점일 때가 근지점일 때보다 더 작게 보인다고 할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관측되는 천체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각지름이 커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근일점에서 관측한 태양의 각지름은 원일점에서 관측한 태양의 각지름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6. 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정답해설** : 5문단에서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현재보다 더 작아지면 근일점은 현재보다 더 멀어지며 원일점은 현재보다 더 가까워지고, 이와 반대로 이심률만이 현재보다 커지면 근일점은 현재보다 더 가까워지고 원일점은 현재보다 더 멀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기>에서 조차는 지구와 달,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진다고 설명하면서 이심률에 따른 조차의 변화를 추론하는 과정에서 천체의 다른 모든 조건들은 고정되어 있고, 다만 지구의 공전 궤도의 이심률과 지구와 달,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만이 조차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더 커지면, 이심률 변화 전보다 1월의 근일점은 더 가까워지고 7월의 원일점은 더 멀어지게 된다. 이때 천체의 다른 모든 조건들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달과 지구의 근지점에는 변화가 없고 지구가 태양에 더 가까워짐으로써 A지점에서 1월에 나타나는 조차가 이심률 변화 전의 1월의 조차보다 더 커지게 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조차는 지구와 달,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지게 된다. <보기>에서 A지점에서의 조차가 1월에 가장 크고 7월에 가장 작으므로 7월보다는 1월에 달과 지구의 거리가 더 가깝고 이에 따라 7월보다 1월에 조차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근지점에 있을 때는 원지점에 있을 때보다 지구와 달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게 된다. 따라서 1월에 A지점에서는 달이 원지점에 있을 때보다 근지

점에 있을 때 조차가 더 커지게 된다. ③ 슈퍼문이 관측된 것은 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슈퍼문이 관측될 때는 원지점에 위치한 보름달이 관측될 때보다 지구와 달의 거리가 더 가깝고 그에 따라 A지점에서의 조차도 더 커지게 된다. ⑤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더 커지면, 지구가 더 타원 궤도로 공전하면서 원일점이 현재보다 더 멀어지게 된다. 이때 천체의 다른 모든 조건들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달과 지구의 원지점에는 변화가 없고 지구가 태양에서 더 멀어짐으로써 A지점에서 7월에 나타나는 조차가 이심률 변화 전의 7월의 조차보다 더 작아지게 된다.

**[27-30] 예술, '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

**지문해설 :** 이 글은 미적 감수성의 문제를 논외로 취급했던 근대 초기의 합리론에 반발하여 미감적 판단력, 즉 미적 감수성의 원리를 설명하려고 했던 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취미 판단이란 대상의 미·추를 판정하는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이다. 취미 판단은 규정적 판단과 달리 'S는 P이다.'라는 명제의 술어 P가 오로지 판단 주체의 쾌 또는 불쾌라는 주관적 감정에 의거하고,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또한 미감적 태도를 전제로 하며, 일체의 다른 맥락이 끼어들지 않아야 한다. 칸트는 취미 판단에는 공통감이 전제로 작용하므로 취미 판단은 주관적 보편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칸트의 취미 판단은 규정적 판단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원리로서 인간의 총체적 자기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주제]** 칸트의 취미 판단의 원리 및 의의

**27. 세부 정보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에서 칸트가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은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 이해라고 언급하였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이성뿐 아니라 미적 감수성에 대해서도 그 고유한 원리를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칸트는 미적 감수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 인간의 총체적 자기 이해에 기여한다고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취미 판단이란 대상의 미·추를 판정하는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라고 하면서 'S는 P이다.'라는 명제의 술어 P와 관련하여 '규정적 판단'과 '취미 판단'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명제의 적용 범위도 '규정적 판단'과 달리 '취미 판단'은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에 국한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칸트가 미감적 판단력과 규정적 판단력이 동일하다고 보았다고 할 수 없다. ② 4문단에서 객관적 타당성은 이성의 미덕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세계'가 개념으로는 낱낱이 밝힐 수 없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한계를 갖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성 에 의한 지식이 개념의 한계로 인해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 아니라 '세계'가 개념으로 낱낱이 밝힐 수 없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한계에 봉착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3문단에서 취미 판단은 규정적 판단의 객관적 보편성과 구별되는 주관적 보편

성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4문단에서 미적 감수성은 대상을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역으로 개념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세계라는 무한의 영역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미적 감수성이 비개념적 방식으로 세계에 접근할 수 있지만, 객관적 지식을 창출한다고 볼 수 없다. ④ 1문단에서 칸트는 미적 감수성을 미감적 판단력이라고 부르면서 근대 초기의 합리론에 맞선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칸트가 미감적 판단력을 본격적으로 규명하여 근대 초기의 합리론을 선구적으로 이끌었다고 할 수 없다.

## 28.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A]에서 취미 판단에는 대상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실용적 유익성, 교훈적 내용 등 일체의 다른 맥락이 끼어들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영화의 주제는 권선징악이어서 아름답다.’에서 ‘권선징악’은 교훈적 내용이라는 다른 맥락이 끼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영화의 주제는 권선징악이어서 아름답다.’는 취미 판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에서 취미 판단은 ‘S는 P이다.’라는 명제의 술어 P가 오로지 판단 주체의 쾌 또는 불쾌라는 주관적 감정에 의거하고,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며, 미감적 태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장미는 아름답다.’는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취미 판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A]에서 취미 판단에는 대상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실용적 유익성, 교훈적 내용 등 일체의 다른 맥락이 끼어들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유용하다’는 실용적 유익성이라는 다른 맥락이 끼어든 것이므로 취미 판단 명제의 술어가 될 수 없다. ③ [A]에서 취미 판단은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모든 예술’은 모든 대상을 묶은 하나의 단위에 해당하므로 취미 판단 명제의 주어가 될 수 없다. ⑤ [A]에서 취미 판단에는 대상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실용적 유익성, 교훈적 내용 등 일체의 다른 맥락이 끼어들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소설은 액자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액자식 구조’라는 대상에 대한 지식이 다른 맥락으로 끼어들었으므로 취미 판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29.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2문단에서 ‘규정적 판단’은 이성이 개념을 통해 지식이나 도덕 준칙을 구성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4문단에서 미적 감수성은 대상을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1문단에서 미적 감수성을 미감적 판단력이라고 언급하고, 2문단에서 취미 판단이란 대상의 미·추를 판정하는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개념적 규정은 규정적 판단에 해당하므로 예술 작품에 대한 취미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3문단에서 취미 판단의 주체들은 미감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공통의 미적 감수성을 전제로 한 공통감은 취미 판단의 미적 규범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공통감은 미각적 공동체에서 예술 작품의 미를 판정할 보편적 규범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공통감으로 인해 취미 판단은 규정적 판단의 객관적 보편성과 구별되는 주관적 보편성을 지닌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특정 예술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취미 판단이 일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주관적 보편성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3문단에서 어떤 주체가 내리는 취미 판단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공통감을 예시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예술 작품에 대한 나의 취미 판단은 내가 속한 미감적 공동체의 미적 감수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취미 판단은 오로지 대상의 형식적 국면을 관조하여 그것이 일으키는 감정에 따라 미·추를 판정하는 것 이외의 어떤 다른 목적도 배제하는 순수한 태도, 즉 미감적 태도를 전제로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예술 작품에 대해 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취하지 못하면 그 작품에 대한 취미 판단이 가능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30. 어휘 선택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지니다’는 ‘바탕으로 갖추고 있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다. ‘소지하다’는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로 물리적 대상에만 적용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여기다’는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생각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다. ‘간주하다’는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보거나 그렇다고 여기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므로 ‘여기다’와 바꿔 쓸 수 있다. ② ‘펼치다’는 ‘생각, 꿈, 계획 따위를 실현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다. ‘피력하다’는 ‘생각하는 것을 털어놓고 말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므로 ‘펼치다’와 바꿔 쓸 수 있다. ③ ‘끼어들다’는 ‘자기 순서나 자리가 아닌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서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다. ‘개입하다’는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들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므로 ‘끼어들다’와 바꿔 쓸 수 있다. ⑤ ‘퍼지다’는 ‘어떤 물질이나 현상 따위가 넓은 범위에 미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다. ‘확산되다’는 ‘흩어져 널리 퍼지게 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므로 ‘퍼지다’와 바꿔 쓸 수 있다.

### [31~45] 문학

#### [31-34] 갈래복합 - (가) 정철, ‘관동별곡’ / (나) 최익현, ‘유한라산기’

**작품해설** : (가)는 정철이 45세가 되던 선조 13년에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받아, 금강산과 관동 팔경을 유람한 내용을 노래한 기행 가사이다. ‘서사-본사-결사’의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며 관찰사로서 선정에 대한 포부와 연군지정(戀君之情)과 같은 위정자로서의 사회적 자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동시에 자연에 동화되어 신선이 되고픈 개인적인 자아의 욕망, 그리고 두 자아 사이의 갈등과 해소 과정이 잘 드러나 있다. 표현의 측면에서는 역동적이면서 생동감 넘치는 풍경 묘사와 아름다운 순우리말 표현, 속도감 있는 내용 전개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주제]** 관동 지방의 절경과 풍류

(나)는 조선 말기에 최익현(崔益鉉)이 지은 한라산 기행문으로 『면암집』에 수록되어 있다. 한라산을 등정하게 된 경위를 시작으로 하여 등반 과정, 백록담의 풍경, 정상에서 의 감회, 한라산의 주변 풍경 등에 대해 묘사한 후 한라산의 형세와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 글을 쓰게 된 동기 등에 대해서 언급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사실적인 묘사와 주관적인 감정의 표출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작품이다.

**[주제]** 한라산의 수려한 풍경과 진면목

### 31. 시구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마하연’, ‘묘길상’, ‘안문재’는 모두 여정에 해당한다. ㉠에서 화자는 자신이 지나온 곳을 간단히 나열하는 한편 서술어는 ‘너머 디여’로 최소화하여 여정을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은 ‘노국이 좁은 것도 우리는 모르는데’라는 의미로 성현(공자)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넙거나 넓은 천하’를 작다고 했던 공자의 기개와 높은 경지를 떠올리며 그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다. ② ㉢의 ‘더 디워’는 천하를 작다고 했던 성현(공자)의 호연지기(浩然之氣)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에는 화자가 헤아릴 수 없는, 성현의 높은 기개와 정신적인 경지에 대한 경외감이 드러나 있다. ③ ㉣의 ‘삼일우’는 ‘음애(陰崖)에 이온 풀’을 살려낼 수 있는 소재로서 죽어가는 대상에게 생명력을 부여할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 ‘음애(陰崖)에 이온 풀’이 백성(민초)을 상징한다고 본다면 ㉣은 선정을 베풀고자 하는 화자의 정치적인 소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⑤ ㉤의 ‘남여(藍輿)’는 ‘의자와 비슷하고 뚜껑이 없는 작은 가마’를 의미하고 ‘완보(緩步)’는 ‘느린 걸음’을 뜻하므로 ‘이동하는 모습을 과장되게 묘사하여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32.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나)의 마지막 문단에서 일행이 주자의 시구를 읊으며 백록담 가로 내려온 내용과 하인들이 식사 준비를 완료한 내용은 확인할 수 있으나 ‘등정 과정에서 있었던 일행들 사이의 갈등이 해소’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의 ‘검은 안개가 몰려오더니’와 ‘섬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등의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2문단의 ‘주위가 1리 남짓하고~얼음이었다.’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은연히 신선이 사는 듯하였다’, ‘참으로 천부의 성곽이었다.’ 등에서 작가의 소감을 확인할 수 있다. ③ 3문단의 ‘그러나 따라오는 자는 겨우 세 명뿐이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마지막 문단의 ‘주자의 시구를 읊으며 백록담 가로 되돌아오니’와 같은 간략한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33.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B]에서는 ‘아래로는 세상을 굽어보며, 좌로는 부상을 돌아보고’, ‘남으로는 소주와 항주를 가리키고 북으로는 내륙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등의 표현을 통해 자연물인 ‘최고봉’을 의인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보기>에서는 ‘노흔 고래’, ‘은산을 것거 내여 육합의 느리는 듯’, ‘오월 장천의 백설’ 등을 통하여 ‘망양정’에서 바라본 물결과 파도의 움직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와 <보기> 모두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자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은하수’는 ‘은하’를 강에 비유하여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A]에서는 폭포를 ‘은하수’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므로 지상의 자연물을 천문 현상에 비유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보기>에서는 자연물인 물결과 파도의 모습을 ‘고래’, ‘은산’, ‘백설’ 등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므로 ‘천문 현상을 지상의 자연물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B]에서는 ‘굽어보며’, ‘돌아보고’, ‘가리키고’, ‘끌어당기고 있었다’ 등의 표현을 통해 최고봉을 인격체처럼 표현하고 있으며 <보기>에서는 바다와 파도의 장관을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자연의 냉혹함’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보기>는 대상에 대한 묘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자연을 통해 자신을 반성’하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 3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에 의하면 ‘와유’는 글을 통해 자연을 감상하는 간접 유람에 해당하고, ‘원유’는 실제 여행을 통해 자연을 즐기는 직접 유람에 해당한다. (가)의 ‘이적선이 이제 이셔 고타 의논하게 되면 / 여산이 여기도곤 낫단 말 못혀려니’라는 구절에서 화자는 ‘여산’을 직접 유람한 것이 아니라 이적선의 글을 통해 와유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상상하던 ‘여산’의 모습’과 ‘실제로 바라본 ‘여산’의 모습’을 비교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화자는 ‘화룡소’를 직접 보고 느낀 감회를 서술하였으므로 ‘관동별곡’을 읽은 다른 이들에게 와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③ (나)의 글쓴이는 2문단에서 직접 ‘백록담’과 주변을 관찰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원유를 통해 자연의 형세를 묘사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④ (나)의 글쓴이는 4문단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최고봉의 모습을 서술한 후, 5문단에서 『맹자』의 “바다를 본 자에게는 다른 물이 물로 보이지 않으며 태산에 오르면 천하가 작게 보인다.”라는 말에 담긴 성현의 역량을 이로써 가히 상상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원유가 호연지기를 기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⑤ (나)의 글쓴이는 5문단에서 ‘또 소동파에게 당시에 이 산을~라는 시구가 적벽에서만 알맞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와유했던 적벽의 모습’과 ‘원유를 통해 확인한 한라산의 모습’을 비교하여 한라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35-37] 고전소설 - 작가 미상, '숙향전'**

**작품해설** : 이 작품은 하늘에서 죄를 지은 두 남녀가 각각 인간의 세계에 내려오고, 주인공인 숙향은 가혹한 시련을 겪지만 결국에는 천상의 인연을 지상에서 이루게 되며, 예정된 행복을 누리고 다시 천상으로 복귀한다는 구조를 가진 애정 소설이다. 숙향이라는 인물을 통해 여성 영웅의 면모를 드러내면서 여성 영웅 소설로서의 전개를 보이고, 천상에서의 인연을 지상에서 이어간다는 특징을 보여 준다.

**[주제]** 고난을 극복한 사랑의 성취

**35. 등장 인물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숙부인'은 '선이 비록 상서의 아들이나 ~ 상서에게 일러 듣지 아니하면 황후께 아뢰어 황제께서 아시게 하리라.'라고 하였으므로 "'숙향'과 '이선'의 혼사가 이루어지도록 '이 상서'로 하여금 '황후'에게 아뢰게 하고 있다.'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이 땅은 명사계요, 저는 후토 부인이니이다. 선녀께서 ~ 보셨나이 까?'와 '저는 한낱 조그마한 신령이요, 그대는 월궁의 으뜸 선녀라. 비록 천상에서 지은 죄로 인간 세상에 내려와 일시 고생을 겪었으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한편 이선은 집에 들어가 울며 숙향이 죽었으면 함께 죽으리라고 하더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김전이 부인의 말을 옳게 여겨 숙향을 도로 하옥하라 하고, 이 사연을 이 상서에게 회보하니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그 여자의 얼굴을 보오니 ~ 아직 죽이지 말고 상서께 기별하여 스스로 처치하게 하오소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6.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에서 '반은 죽은 사람이라.'라는 진술은 '숙향'의 심리를 드러낸 표현이 아니라 서술자의 생각을 반영한 표현이다. 따라서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그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에서 첩첩산중이라는 공간적 배경과 새들마저 잠자리에 드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오갈 데 없는 숙향의 힘든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② ㉢에서 '숙향'은 '파랑새'를 따라 가다 궁궐의 '큰 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후토 부인'이 있는 '명사계'로 진입하게 된다. 따라서 '큰 문'은 현실과 초현실의 경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에서 '몸은 비록 아이나 마음은 어른이라'라는 진술은 서술자가 자신의 생각을 서술한 것이므로 ㉣은 인물에게 일어난 변화를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은 '원통'의 발언으로 '숙향'에게 일어난 사건의 자초지종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B]에서 '후토 부인'은 자신을 '한낱 조그마한 신령'으로, '숙향'을 '월궁의

으뜸 선녀'로 칭한 후, 비록 천상에서 지은 죄로 인간 세상의 일시적인 고생을 겪더라도 본래의 신분에는 변함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천상계의 신분'이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A]의 '천상에 득죄하여 인간 세상에 내려와 고초가 심하거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B]의 '그대는 월궁의 으뜸 선녀라. 비록 ~ 어찌 하시나이까?'라는 진술은 천상계에서 높은 신분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지상계에 내려와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 ④ [C]의 '봉래산 선관 선녀로서 인간 세상에 귀양 왔사오니'에는 지상계가 천상계에서 죄 지은 자들의 귀양지라는 생각이 드러나 있다. ⑤ [C]의 '기한이 차면 봉래로 돌아갈 것이요'에는 정해진 고난의 기한이 차야만 천상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 [38-42] 현대소설 - 현진건, '무영탑'

**작품해설** : 이 소설은 불국사의 석가탑 건립과 관련하여 전해 내려오는 백제의 석공 아사달과 그의 아내 아사녀의 비극적 사랑을 모티프로 창작된 작품이다. '무영탑'은 설화에 얽힌 석가탑의 다른 이름이다. 작가 현진건은 한 석공의 예술혼과 남녀 간의 사랑을 결합하여 석공 아사달이 고뇌와 번민을 이겨내고 신라 시대 최고의 작품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석가탑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현진건은 '유종'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일제 치하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이는 1930년대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현실에 대응하는 작가의 민족주의적 태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문으로 제시된 장면은 자신의 딸과 혼사를 진행하려는 금지의 뜻을 거절하려는 유종의 내면 의식과 아내인 아사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돌에 담아 새겨 내는 작업을 하는 아사달의 내면 의식을 담고 있다.

**[주제]** 고뇌와 번민을 극복하고 이루어 낸 예술적 성취

### 38.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윗글의 중략 앞부분에는 '주만'의 혼사 문제를 두고 괴로워하는 '유종'의 내적 갈등이, 중략 이후에는 '아사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돌에 담아 새겨 내는 작업을 진행하는 '아사달'의 내적 갈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윗글에는 인물의 의식이 내적 갈등에 초점을 둔 서술 방식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윗글에는 인물들 간의 대화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윗글에서는 "한 나이나 젊었더면!"이 인물의 유일한 발언이다. 이는 고립무원의 처지인 '유종'이 조국의 미래를 염려하며 내뱉는 발언이다. 아울러 '유종'은 조정에서 일하는 사람임을 감안할 때, 윗글에서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신분이 낮은 인물의 발언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유종'은 당학파가 득세하는 세태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주의 주장에 공명하는 사윗감을 구하려 하는 '유종'이 탈속적 세계를 지향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유종'은 당학파가 득세하는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사윗감을 찾으려 하고 있고, '아사달'은 거룩한 부처님의 형상을 돌에 새기려 하고 있다. 따

라서 권력과 사랑을 동시에 쟁취하여 신분 상승을 도모하는 소외된 개인의 욕망이 구체적인 일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39.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유종’은, 당학파의 우두머리인 ‘금지’의 아들 ‘금성’과 자신의 딸인 ‘주만’의 혼사를 막기 위해 ‘다른 데 정혼’을 하여 자기의 주의 주장에 공명하는 사윗감을 구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은 ‘유종’이 자기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일 뿐 자신과 대립하는 세력과의 연대를 위한 방도라고 할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유종’은 ‘금지’로 대표되는 당학파가 당학에 빠져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그네들의 한문’이 난신적자를 만들어 내기에 알맞은 것이라고 깎아내리고 있다. 이는 삼한 통일을 이룬 신라의 씩씩한 기풍이 당학에 지질리고 나라가 문약으로 흐른다는 ‘유종’의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종이 ㉡을 신라를 문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유종’은 자기와 뜻을 같이하는 이가 조정에서 사라지고 혼자만 외로이 남은 처지에 놓인 자신을 ‘무 밑둥’에 빚대어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은 ‘유종’의 외로운 처지를 보여 주는 비유라 할 수 있다. ③ ‘이 늙은 향도’는 화랑도를 숭상해 온 ‘유종’ 자신을 가리킨다. 따라서 ㉣은 현재의 주류적 기풍인 당학을 거부하는 ‘유종’을 지칭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④ ‘그럴 만한 인물’은 화랑도를 숭상하는 자기의 주의 주장에 공명하는 사윗감을 가리킨다. ‘유종’은 당학파에 맞서 신라의 씩씩한 기풍을 회복하려고 하므로 ㉤은 ‘유종’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원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 40.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A]는 어젯밤의 아사녀의 환영처럼 ‘주만’의 모습이 환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며, [B]는 자신을 떠나 보내는 ‘아사녀’의 모습이 환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다. 따라서 [A]의 ‘주만’의 모습과 [B]의 ‘아사녀’의 모습은 모두 ‘아사달’이 그들의 환영을 보는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에는 자신의 모습을 돌에 새겨 달라는 ‘주만’의 간청이 나타나 있을 뿐 떠나는 ‘아사달’에 대한 ‘주만’의 걱정이 나타나 있지는 않다. ② [B]에는 떠나는 ‘아사달’과 이별하는 ‘아사녀’의 모습이 나타나 있을 뿐 ‘아사달’과 ‘아사녀’의 이별의 원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B]에는 떠나는 ‘아사달’과 이별하는 ‘아사녀’의 모습이 나타나 있을 뿐 훗날의 만남에 대한 ‘아사달’과 ‘아사녀’의 기약이 나타나 있지는 않다. ④ [A]에는 자신의 모습을 돌에 새겨 달라는 ‘주만’의 간청이 나타나 있으며, [B]에는 떠나는 ‘아사달’과 이별하는 ‘아사녀’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A]와 [B] 모두에서, 이별한 대상인 ‘주만’과 ‘아사녀’를 잊고자 하는 ‘아사달’의 의지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

### 4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아사달’은 ‘아사녀’와 ‘주만’ 두 얼굴이 거룩한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하는 장면에서 눈을 번쩍 뜨고, ‘원불’ 상을 돌에 담아내고 있다. 이는 ‘주만’과 ‘아사녀’로 인해 번민하던 ‘아사달’이 고뇌와 번민을 떨치며 종교적 세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사녀’와 ‘주만’의 환영이 하나로 어우러져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했으므로 신앙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어 절망하는 인물의 내면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유종’은 당학파의 우두머리인 ‘금지’를 비판하면서 신라의 씩씩한 기풍을 바로세우기 위해 화랑도 사뭇감을 구하려 하고 있다. 이는 일제 치하의 현실에서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작가 현진건의 민족주의적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아사달’은 죽은 아내인 ‘아사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돌에 담아 새겨 내는 작업을 한다. 따라서 ‘아사달’이 ‘아사녀’의 환영을 돌에 담아내려고 하는 장면에는 ‘아사녀’에 대한 ‘아사달’의 사랑과 그의 예술혼을 융합해 내려는 작가 현진건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유종’은 ‘금지’와 같은 당학파를 나라를 좀먹게 하는 집단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는 외세를 추종하는 당대의 현실을 비판하려는 작가 현진건의 민족주의적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아사달’은 ‘주만’을 떠오르는 햇발에, ‘아사녀’를 샬넉의 하늘에 반짝이는 별만 한 광채에 빛대면서 머리가 어지러워짐을 느낀다. 이는 두 여인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원불’ 상을 어떻게 새겨야 할 것인가를 고뇌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사달’이 ‘아사녀’를 ‘별만 한 광채’로, ‘주만’을 ‘떠오르는 햇발’로 떠올리며 갈등하는 장면에서, 새로운 예술적 경지에 이르는 과정에서 빛어진 ‘아사달’의 고뇌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 42. 외적 준거에 따른 새로운 가치 발견

**정답해설** : 윗글에서는 ‘아사녀’의 얼굴과 ‘주만’의 얼굴이 녹아들어 ‘거룩한 부처님’ 모양으로 변한 것이 ‘원불’ 상으로 새겨지고 있으므로 ‘새로운 돌부처’ 형상에 석공의 얼굴이 아니라 여인의 얼굴이 새겨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돌부처’ 형상에 석공의 얼굴이 새겨진 것은 윗글이 [자료 1]과 [자료 2]의 서사 모티프를 이어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윗글에서 ‘아사녀’는 ‘아사달’을 찾아왔으나 끝내 그를 만나지 못하고 그림자못에서 죽었다. 이는 ‘아사녀’가 석공과 만나려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고 있는 [자료 1]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윗글은 [자료 1]과 같은 설화를 차용하여 소설로 변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② [자료 2]에서 ‘그’는 제 환상에 떠오른 사랑하는 아내의 모양이 거룩한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하는 경험을 하고 조각을 완성하게 된다. 윗글에서도 ‘아사달’이 ‘아사녀’의 죽음을 계기로 ‘아사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돌에 담아 새겨 내는 작업에 몰입하고 있으므로 윗글은 [자료 2]처럼 ‘아내’의 죽음을 종교적 상징으로 승화하고 있는 관점을 이어 간 작품이라 할 수 있다. ③ [자료 1]과 [자료 2]에는 ‘유종’과 ‘주만’이 등장하지 않지만, 윗글에서는 ‘유종’과 ‘주만’이 등장하여 서사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윗글은 [자료 1]과 [자료 2]의 이야

기에 ‘유종’과 ‘주만’ 등의 서사를 추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자료 1]의 ‘연못’은 ‘아사녀’가 석공의 모습을 보기 위해 찾아간 곳이다. 그러나 [자료 2]의 ‘못’은 ‘그’가 ‘아사녀’의 뒤를 따라 몸을 던지는 곳이며, 윗글의 ‘못’은 ‘아사달’의 아내인 ‘아사녀’가 죽은 곳이다. 따라서 윗글과 [자료 2]의 ‘못’은 [자료 1]의 ‘연못’이 부부간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환기하는 공간으로 변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43-45] 현대시 - (가) 오장환, ‘고향 앞에서’ / (나) 최두석, ‘낡은 집’**

**작품해설 :** (가)는 일제 강점기 고향을 떠난 화자가 그리운 고향을 앞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슬픔을 노래한 작품이다. 화자는 고향 가까운 나룻가를 서성이고 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러 고향의 소식이나마 듣고자 한다. 그러나 전나무 우거지고 집집마다 누룩 뜨는 냄새 가득하던, 훼손되지 않은 고향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 고향을 잃은 민족의 슬픔과 설움을 보여 주고 있다.

**[주제]** 고향을 잃은 슬픔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나)는 가난하지만 따뜻한 가족의 정이 느껴지는 고향의 모습을 담담한 어조로 그려낸 작품이다. 부모와 동생이 사는 고향집은 ‘슬레이트 흙담집’, 제목 그대로 ‘낡은 집’이다. 여전한 고구마 뒤주와 벽에 매달린 메주들의 박치기는 화자가 애정을 갖고 고향집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 준다. ‘허리 굽은 어머니’, ‘닭똥으로 비료 만드는 공장에서 어두워질 때까지 일하는 아버지’에 대한 묘사에서 가난하고 고된 삶을 살아가는 가족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난다. 또한 콩깍지로 군불을 피워 주는 어머니, 화자를 반겨 주는 동생, 아들을 위해 오리를 잡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과장되지 않은 따뜻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다.

**[주제]** 고향에서 느끼는 따뜻함과 안타까움

**43. 화자의 정서, 태도**

**정답해설 :** (가)의 2연에는 고향 가까운 나룻가를 오가는 행인에게서조차 온기를 느끼고 싶어 하는 화자의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 있다. (나)에서 화자는 고향집을 ‘나의 부모인 농부 내외와 그들의 딸이 사는’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화자가 익숙한 시선에서 벗어나 고향집을 낯선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의 4연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에서 조상이 있는 공간은 화자가 회복하고 싶은, 화자의 뿌리인 고향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무덤 속에’ 잠자는 조상을, 권위가 지속되는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우며, 화자가 고향을 벗어나고자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나)의 화자는 고향을 가난이 지속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곳을 벗어나고자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가)의 화자는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주인집 늙은이’와 슬픈 심정을 나누기도 한다. 따라서 각박한 인심에 좌절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나)에서 세상의

변화나 인심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④ (가)의 화자는 고향을 잃은 신세이며 (나)에서 화자는 공장에서 일하는 아버지의 고된 삶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삶의 무상함을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가)에서 ‘전나무 우거진 마을’은 화자의 마음 속 고향의 모습이자 화자가 회복하고자 하는 고향을 형상화한 것이다. 따라서 자연과의 조화를 화자가 내세우는 가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나)의 화자는 농부인 아버지가 공장에서 밤늦도록 일을 하며 ‘차비 정도를 버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으므로 산업화를 통한 농촌의 변화를 희망한다고 보기 어렵다.

#### 44.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은 장꾼들에게 말하는 형식을 빌어서, 실상 고향 잃은 화자의 설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에게 묻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독백조의 토로라고 보기 어렵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봄이 되어 강의 얼음이 갈라지고 강물에 얼음장이 떠내려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② 고향에서 지냈던 행복한 추억들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자신의 가족을 ‘농부 내외와 그들의 딸’로 지칭해 마치 제3자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⑤ 텅 빈 집 안과 선뜩한 냉돌에는 가난한 농촌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 4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주인집 늙은이가 눈물지우는 것은 화자의 슬픔에 대한 공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주인집 늙은이의 슬픔에 화자가 공감한다는 것은 적절한 이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보기>에서 고향을 떠난 이가 복귀하려는 고향은 따뜻한 공간으로 표상된다고 하였다. (가)의 6연에서 고향이 평화롭고 따뜻한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나)에서 화자는 가난한 농촌 현실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 따라서 (나)에 그려진 고향은 이상적인 공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어머니가 군불을 피우고 동생이 화자를 반가워하며 아버지가 오리를 잡는 것은 고향의 따뜻함과 가족애를 보여 주는 소재들이다. ⑤ (가)에서 귀향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나)에서 귀향은 이상적 공간으로의 복귀가 아니라는 점에서 (가)와 (나) 모두 귀향의 완성이라고 보기 어렵다.